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제92차 CATI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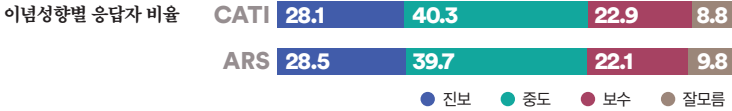
제107차 ARS조사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CATI & ARS



CATI 조사개요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B/A)	성별			지역
표본크기	1,001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01	100.0	1001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성별	남성	501	50.0	495	49.5	0.98				
조사방법	통신3사(전체 30,000개 / SKT: 15,000, KT: 9,000, LGU+: 6,000)제공 무선가상번호 활용 CATI 전화면접조사			여성	500	50.0	506	50.5	1.01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10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셀가중)		연령	18~29세	158	15.8	156	15.6	0.98				
응답률	11.1% [총 통화시도 8,997명]			30대	152	15.2	149	14.9	0.98				
조사기간	2024년 11월 22일 ~ 11월 23일(2일간)			40대	176	17.6	176	17.6	1.00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198	19.8	197	19.7	0.99				
				60대	171	17.1	175	17.5	1.02				
				70세 이상	146	14.6	148	14.8	1.01				
			지역	서울	187	18.7	186	18.6	0.99				
				인천·경기	322	32.2	322	32.2	1.00				
		대전·세종·충청		109	10.9	108	10.8	0.99					
		광주·전라		97	9.7	98	9.8	1.01					
		대구·경북		96	9.6	97	9.7	1.01					
		부산·울산·경남		149	14.9	148	14.8	0.99					
		강원·제주		41	4.1	42	4.2	1.02					

ARS 조사개요

모 집 단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응답자 특성			조사원료 사례수(A)		가중값 적용 기준(B)		가중값배율	성별			지역	
표본크기	1,001명				사례수(명)	비율(%)	사례수(명)	비율(%)	(B/A)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전체		1001	100.0	1001	100.0	1.00					
표집방법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		성별	남성	516	51.5	495	49.5	0.95					
조사방법	무선(100%) RDD 활용 ARS조사			여성	485	48.5	506	50.5	1.04					
가중방법	행정안전부 2024년 10월 31일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인구 기준 가중치 산출(립가중)		연령	18~29세	136	13.6	156	15.6	1.14					
응답률	2.6% [총 통화시도 39,127명]			30대	127	12.7	149	14.9	1.17					
조사기간	2024년 11월 22일 ~ 11월 23일(2일간)			40대	191	19.1	176	17.6	0.92					
조사기관	(주)여론조사꽃			50대	213	21.3	197	19.7	0.92					
				60대	188	18.8	175	17.5	0.93					
				70세 이상	146	14.6	148	14.8	1.01					
			지역	서울	189	18.9	186	18.6	0.98					
				인천·경기	320	32.0	322	32.2	1.00					
				대전·세종·충청	111	11.1	108	10.8	0.97					
				광주·전라	100	10.0	98	9.8	0.98					
				대구·경북	100	10.0	97	9.7	0.97					
				부산·울산·경남	143	14.3	148	14.8	1.03					
				강원·제주	38	3.8	42	4.2	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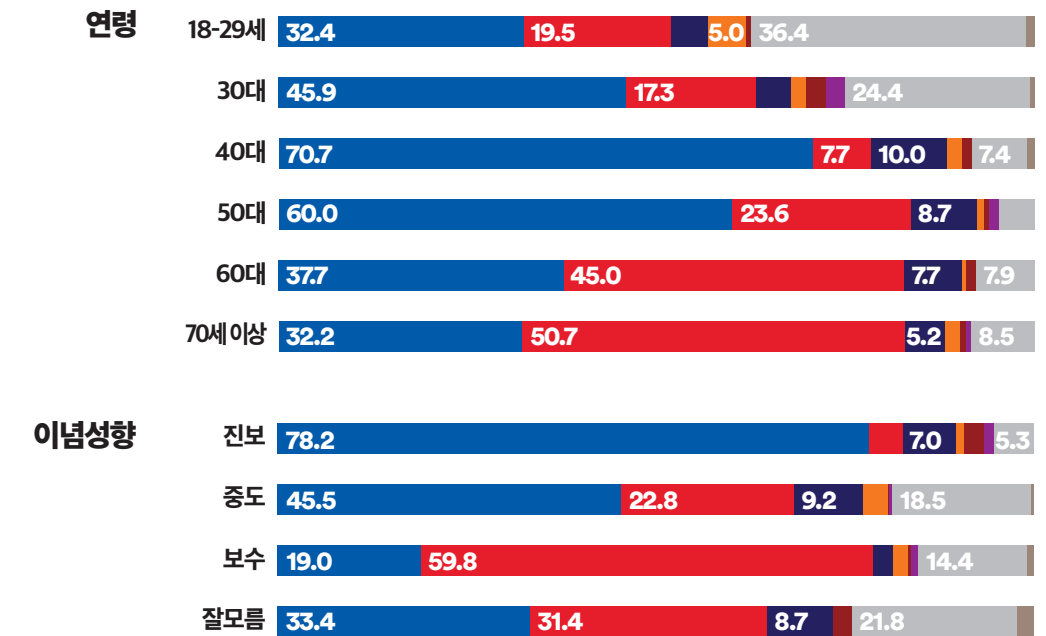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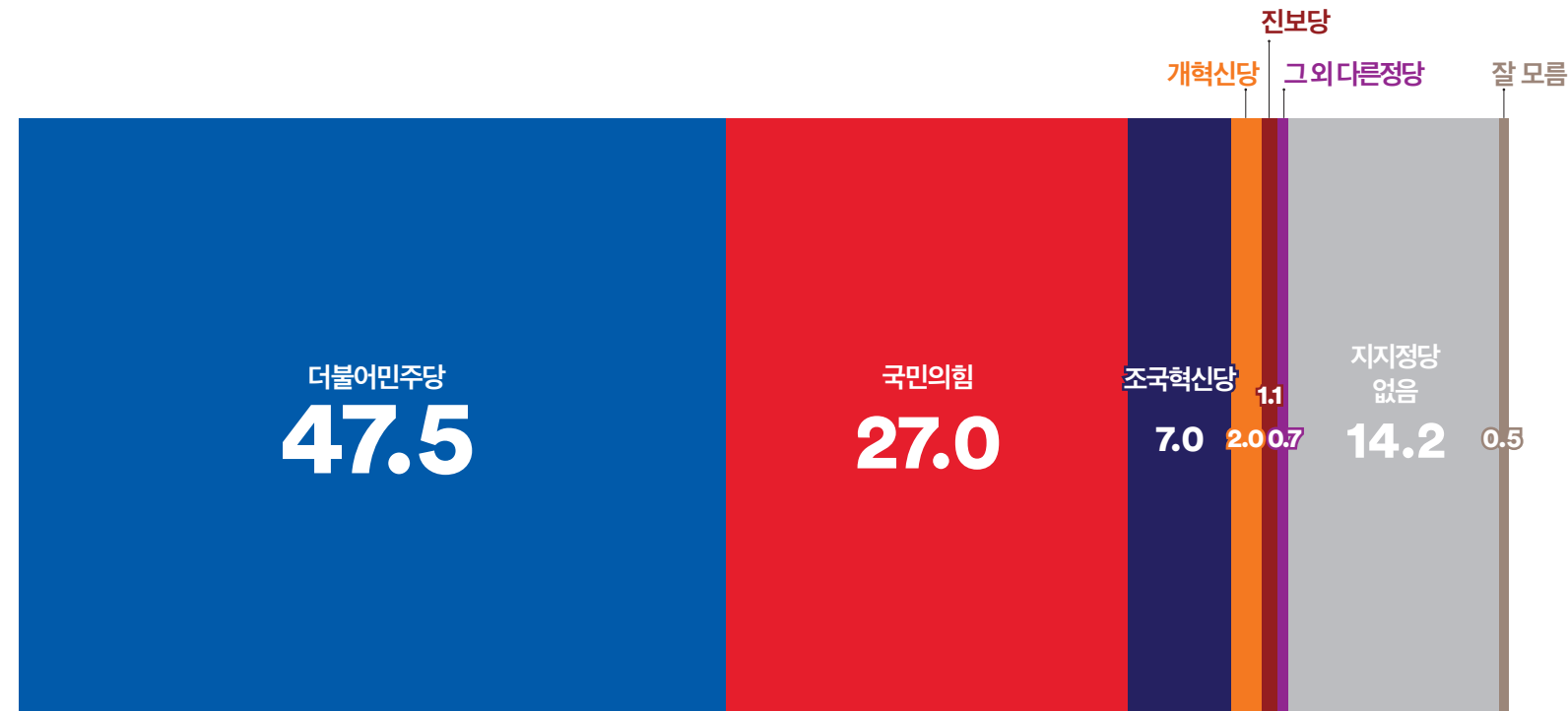
51.5%
남성

48.5%
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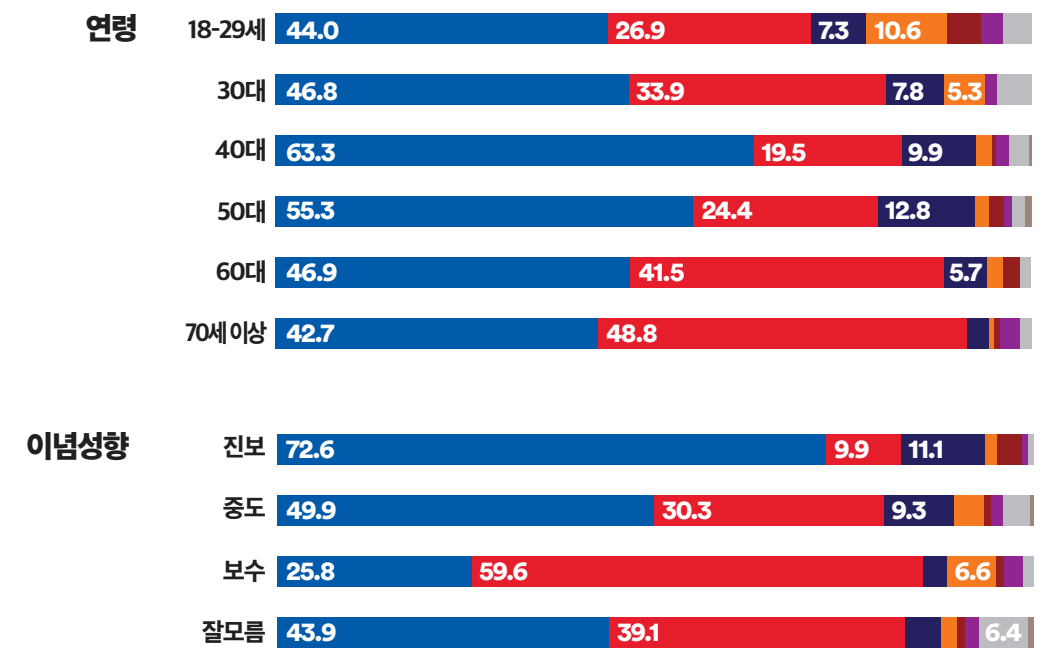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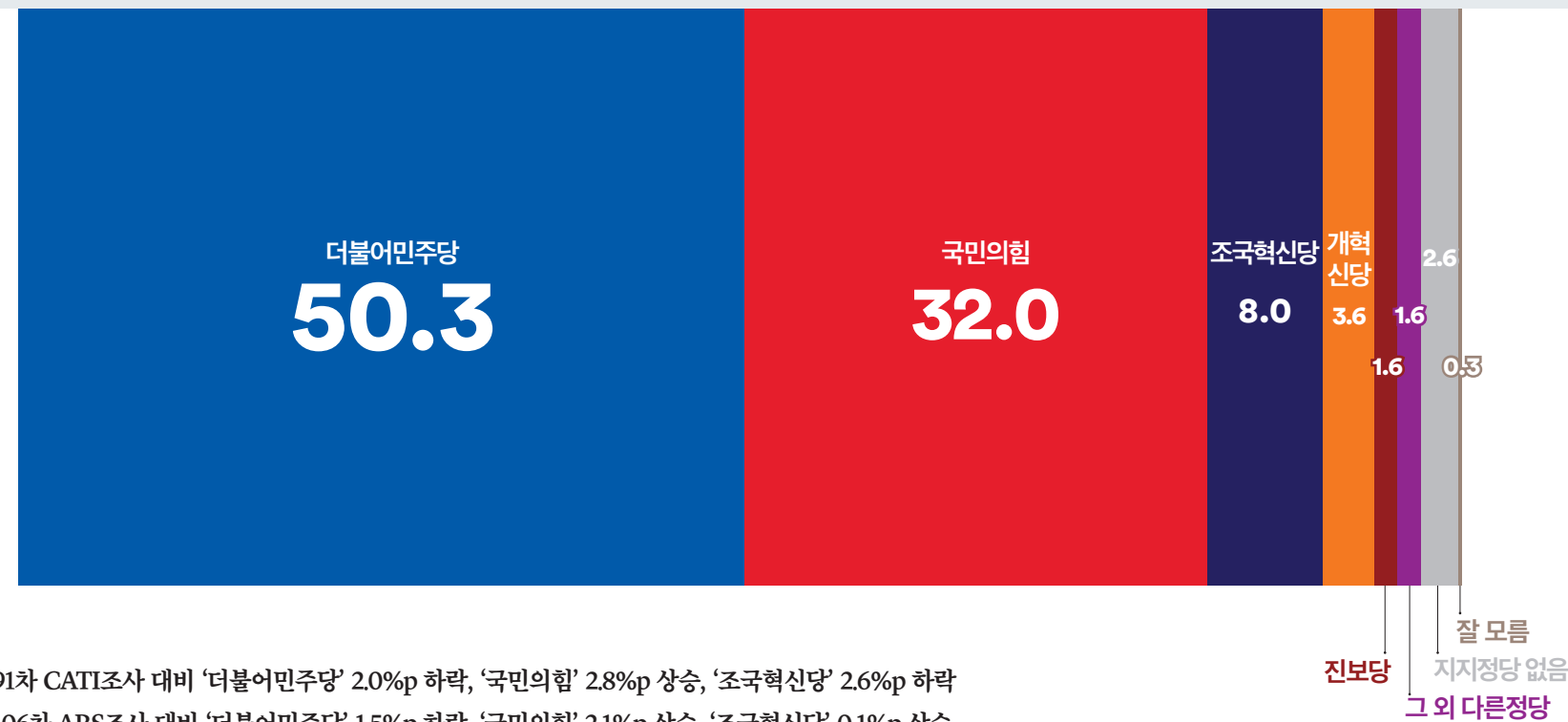
18.9%
32.0%
11.1%
10.0%
10.0%
14.3%
3.8%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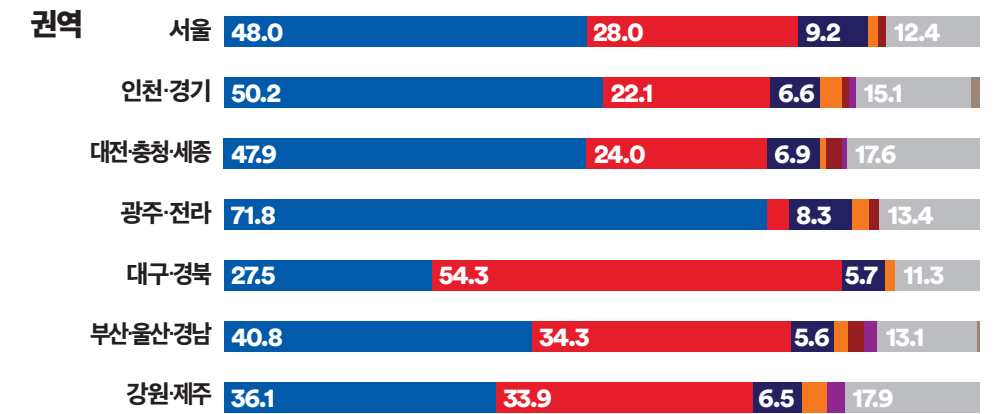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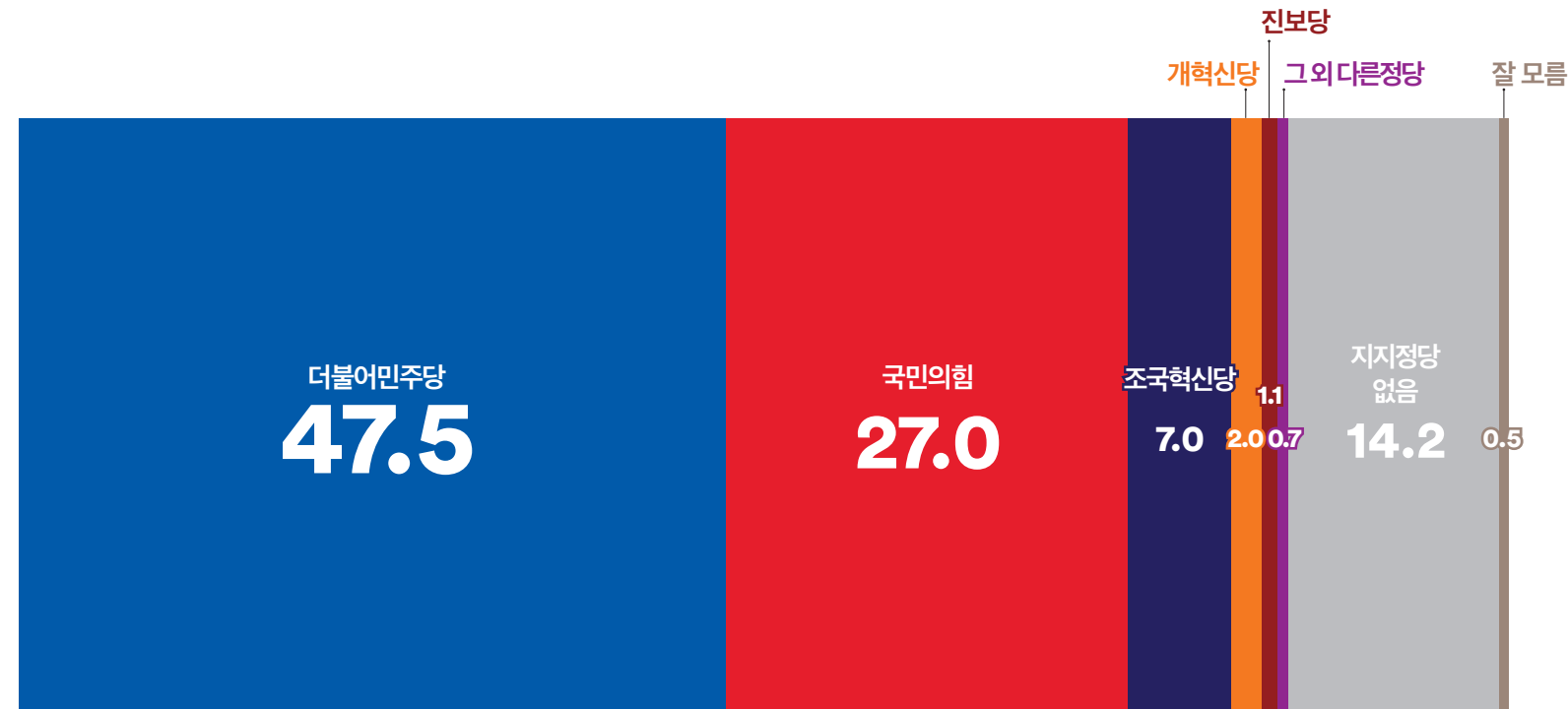


91차 CATI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2.0%p 하락, '국민의힘' 2.8%p 상승, '조국혁신당' 2.6%p 하락
 106차 ARS조사 대비 '더불어민주당' 1.5%p 하락, '국민의힘' 2.1%p 상승, '조국혁신당' 0.1%p 상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간 격차는 CATI 20.5%p, ARS 18.3%p(지난 조사: CATI 25.3%p, ARS 21.9%p)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간 격차는 CATI 27.5%p, ARS 26.3%p(지난 조사: CATI 34.9%p, ARS 29.8%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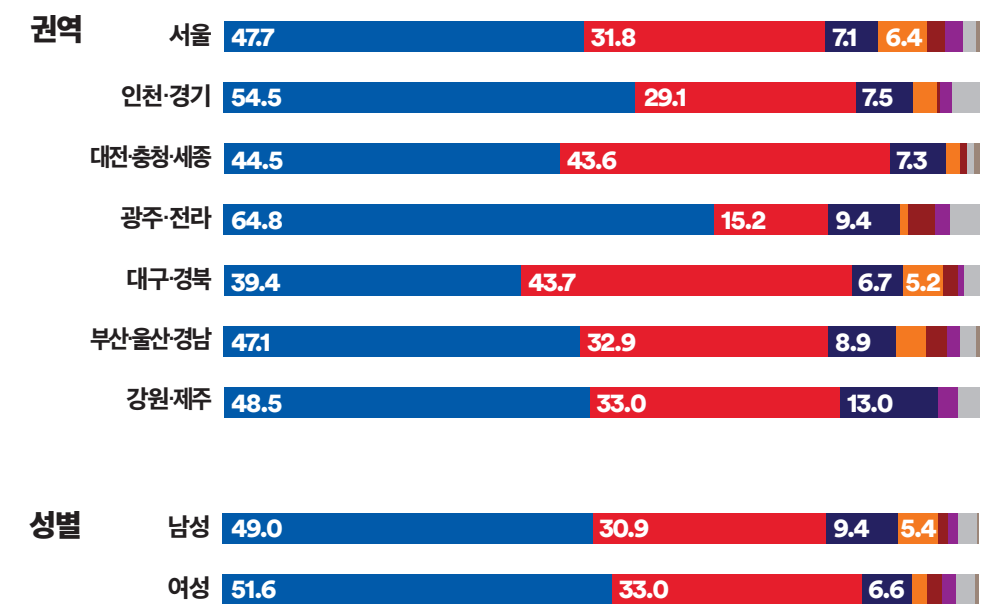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그 외 다른 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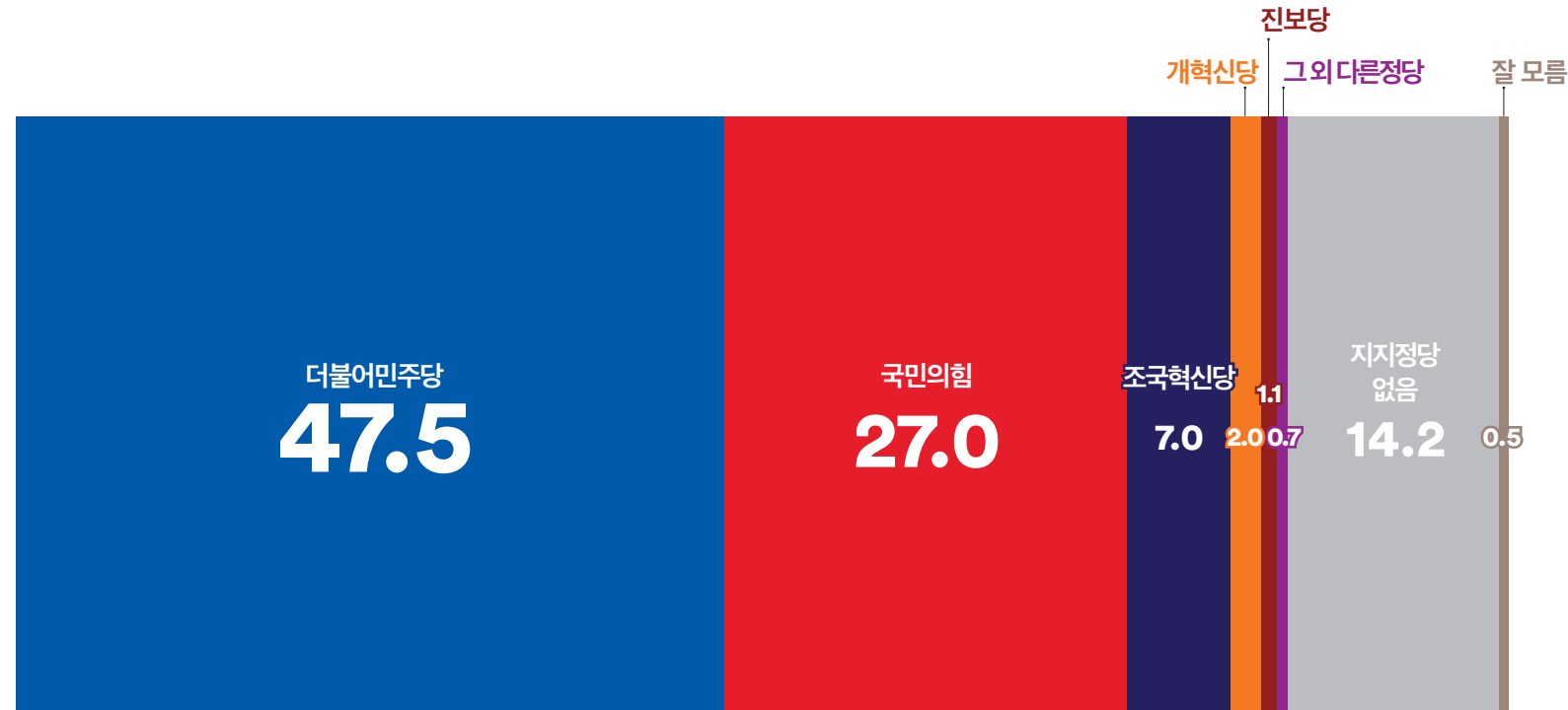


남·녀 모두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대비 우세
 CATI조사의 5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앞서거나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국민의힘' 우세
 ARS조사의 60대 이하 응답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앞서거나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국민의힘' 앞섬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수도권과 호남권 (CATI 충청권 포함) 에서 우세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을 비교하면 두 조사 모두 수도권, 호남권 (CATI 충청권, ARS PK포함)에서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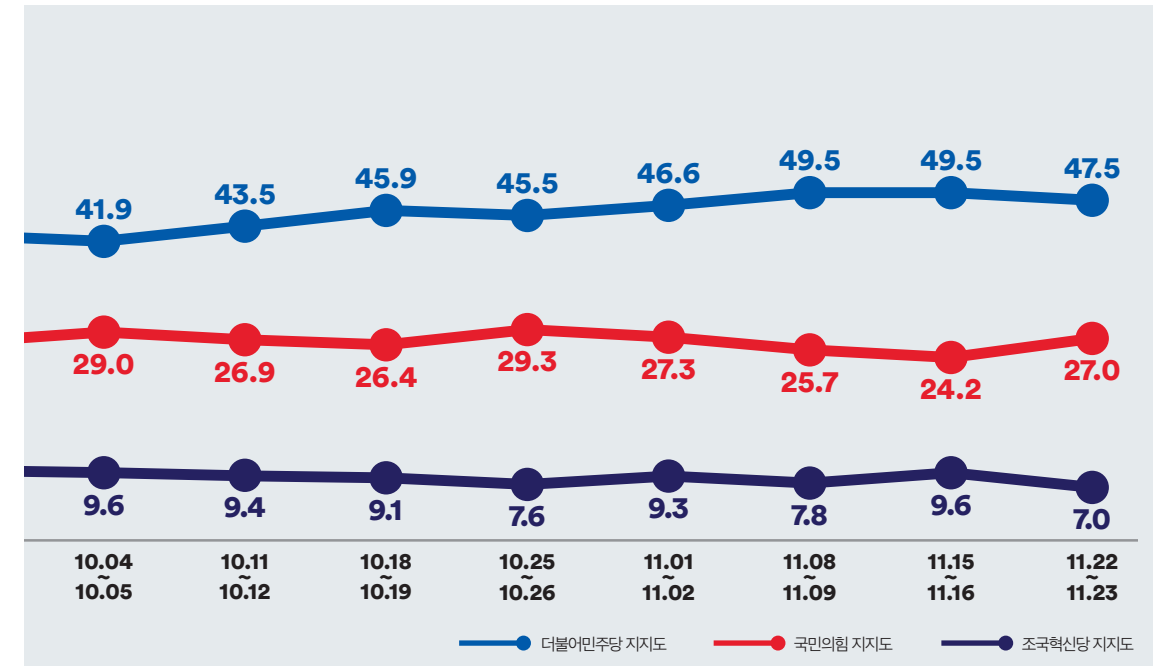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그 외 다른 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Q. 평소 지지하거나 조금이라도 더 호감이 가는 정당은 다음 중 어디입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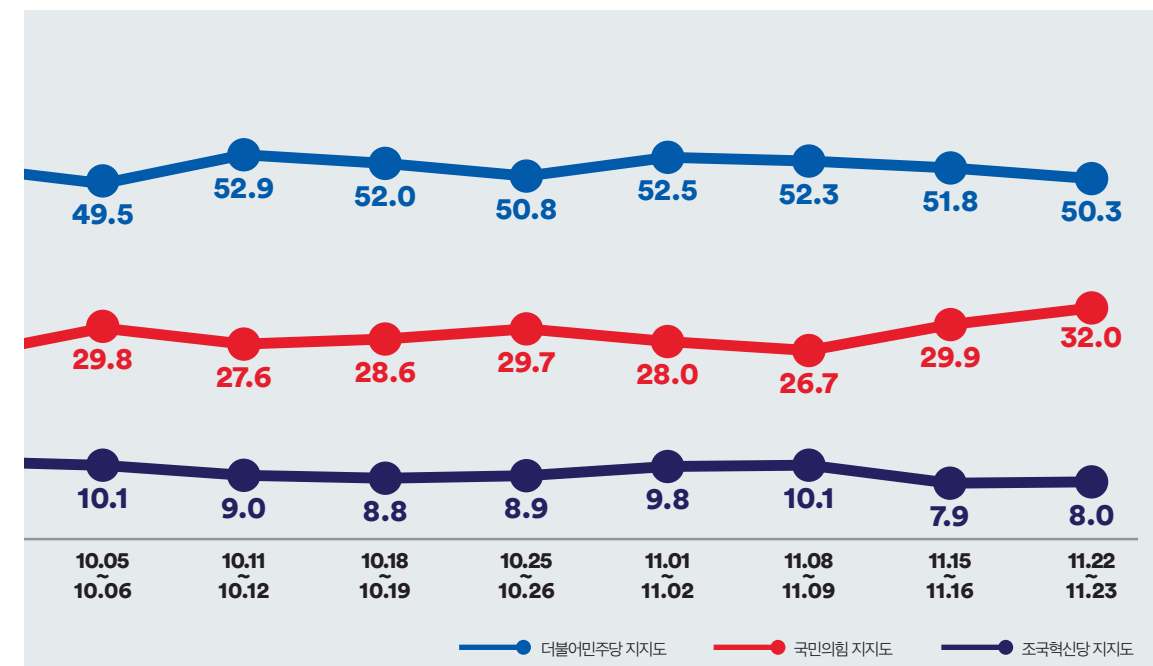
주차별
정당지지도



ARS



주차별
정당지지도



CATI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45.5%, '국민의힘' 22.8%, '조국혁신당' 9.2%의 지지율을 보임

ARS조사의 중도층은 '더불어민주당' 49.9%, '국민의힘' 30.3%, '조국혁신당' 9.3%의 지지율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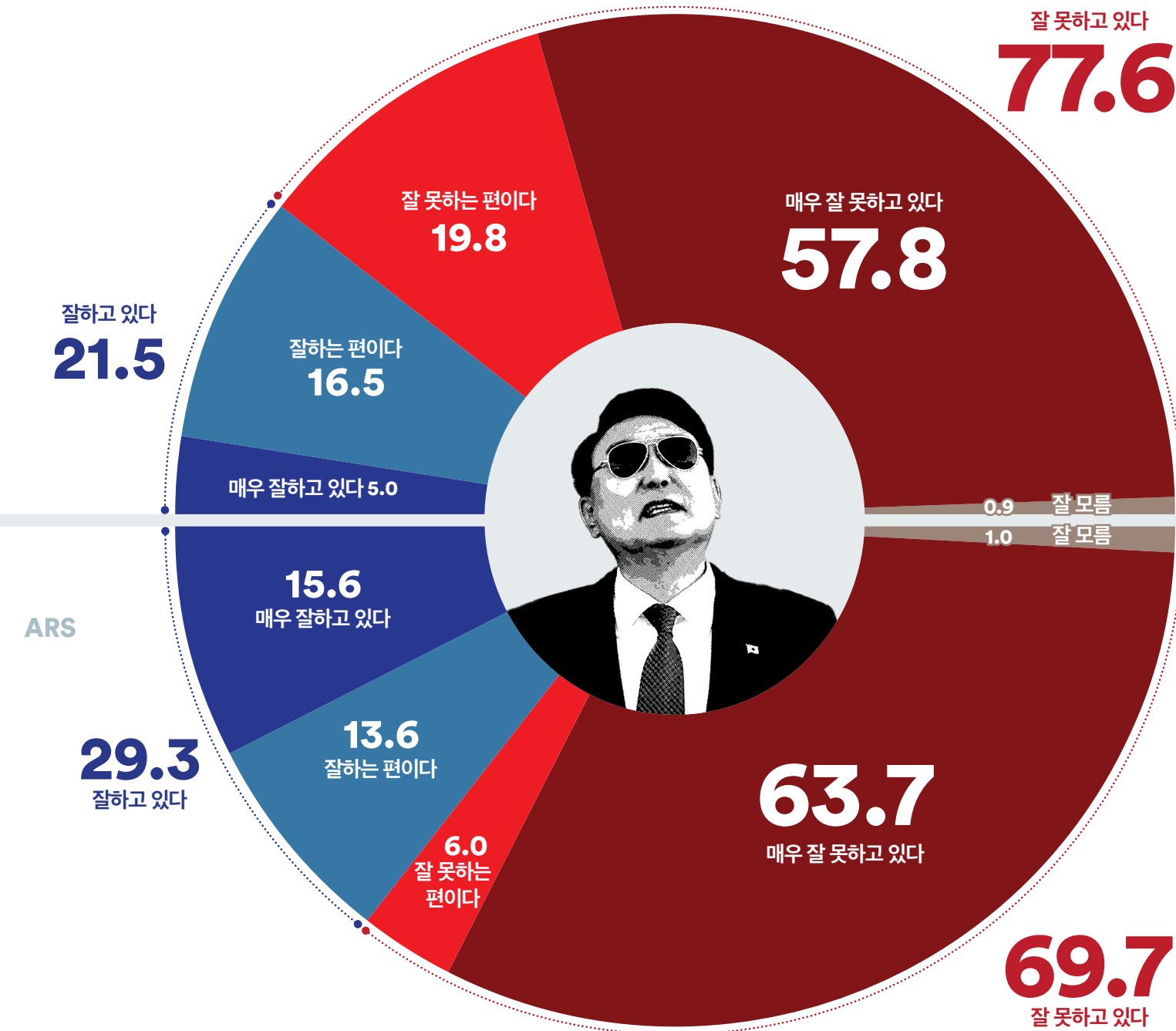
중도층에서의 양 세력('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국민의힘')간 지지율 격차는 CATI 31.9%p(91차: 42.4%p), ARS 28.9%p(106차: 34.3%p)

■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 진보당 ■ 그 외 다른 정당 ■ 지지정당 없음 ■ 잘 모름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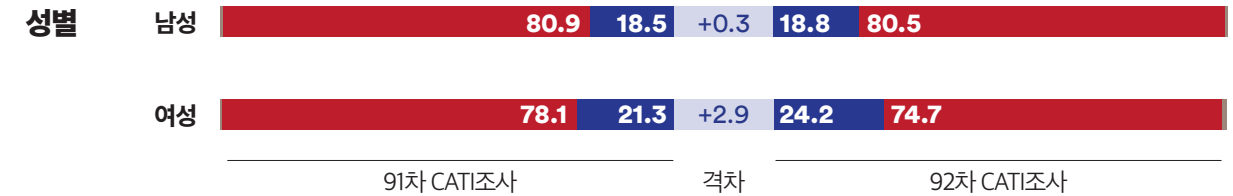


91차 CATI조사 대비 '긍정' 평가 1.6%p 상승, '부정' 평가 1.9%p 하락(격차 56.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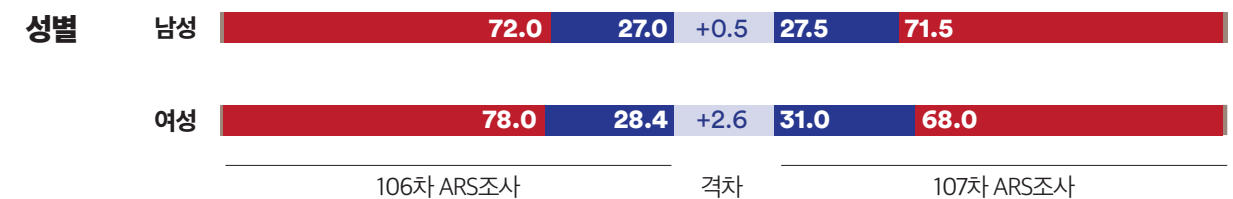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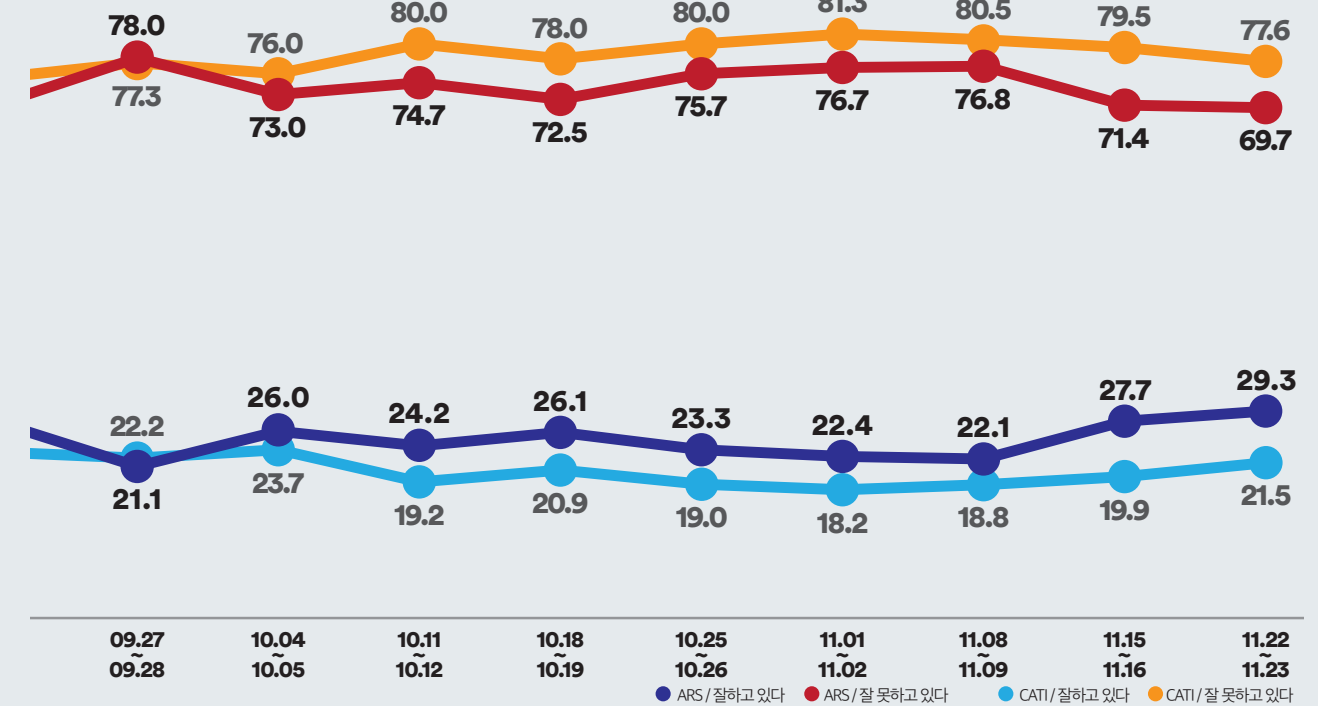
106차 ARS조사 대비 '긍정' 평가 1.6%p 상승, '부정' 평가 1.7%p 하락(격차 40.4%p)

두 조사의 모든 권역, 남·녀 모두, 70세 이상 응답층을 제외한 두 조사의 모든 연령층에서 '부정' 평가 우세

두 조사의 중도층에서도 '부정' 평가가 우세하고, 평가 간 격차는 CATI 61.7%p(지난 조사: 71.4%p), ARS 45.3%p(지난 조사: 50.7%p)



주차별 국정운영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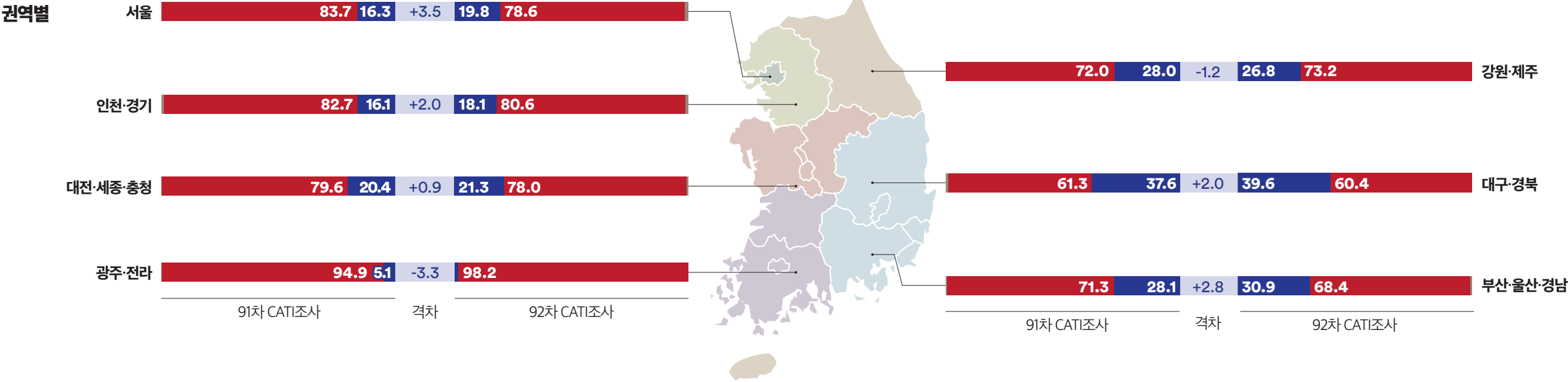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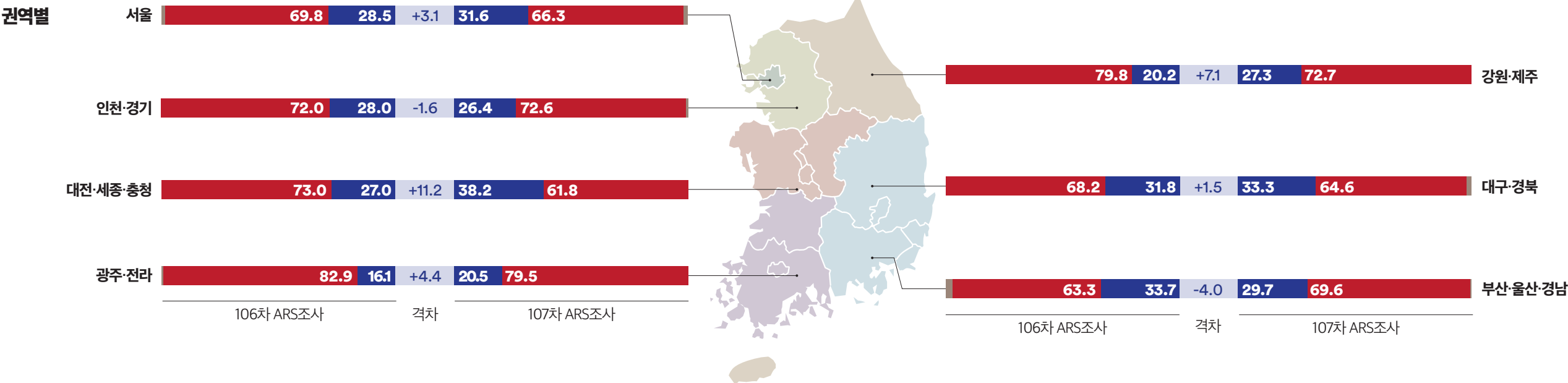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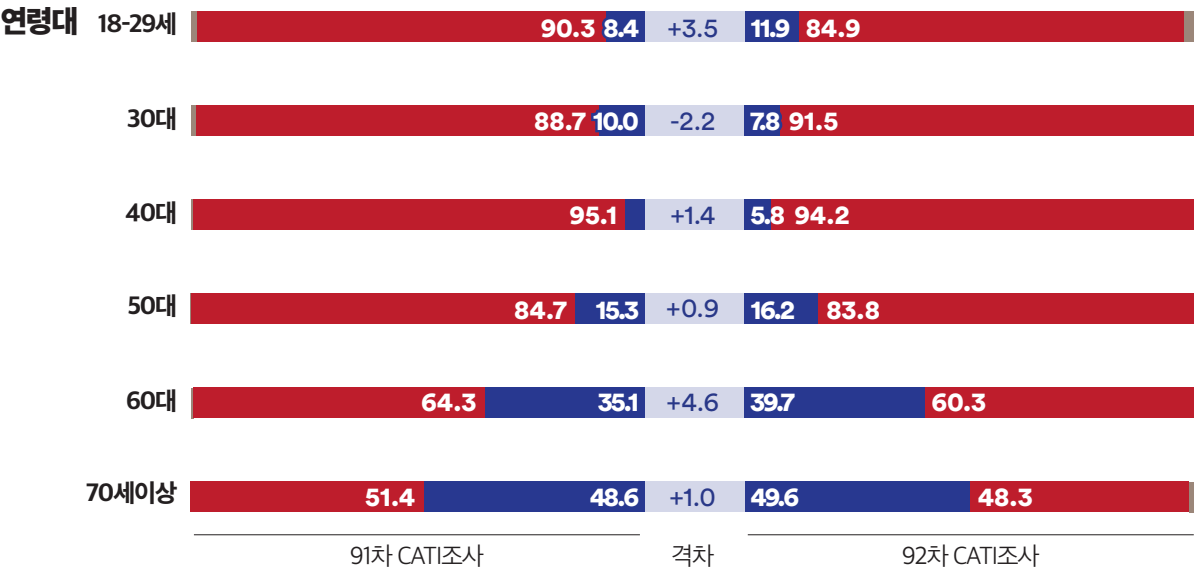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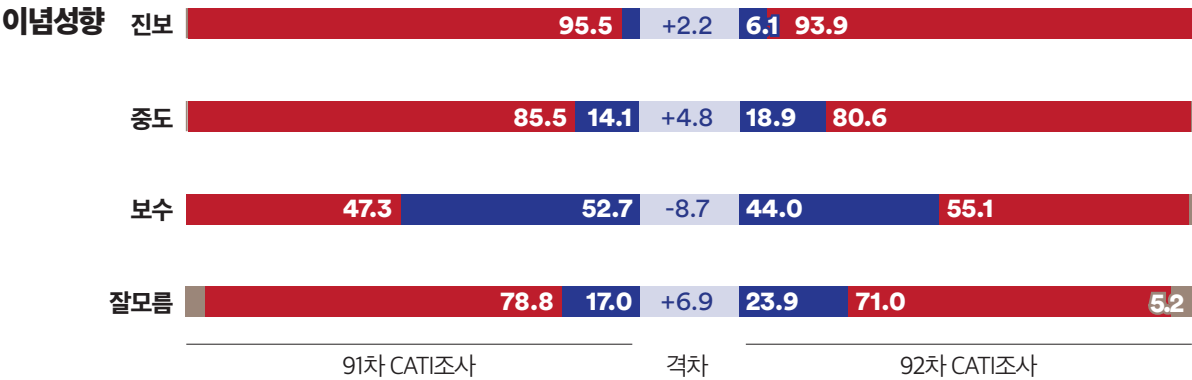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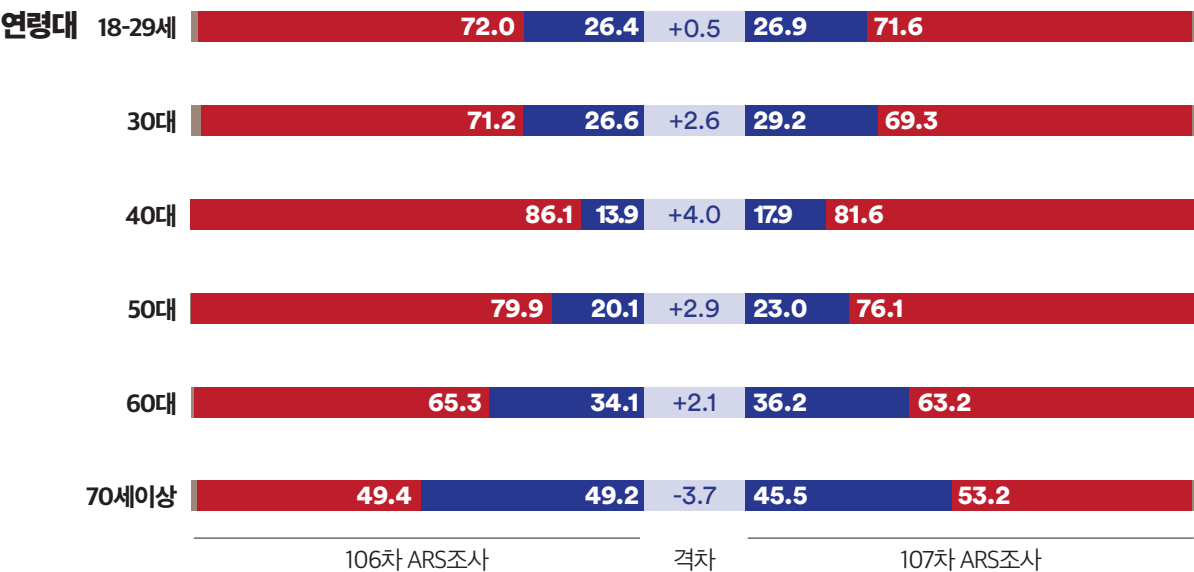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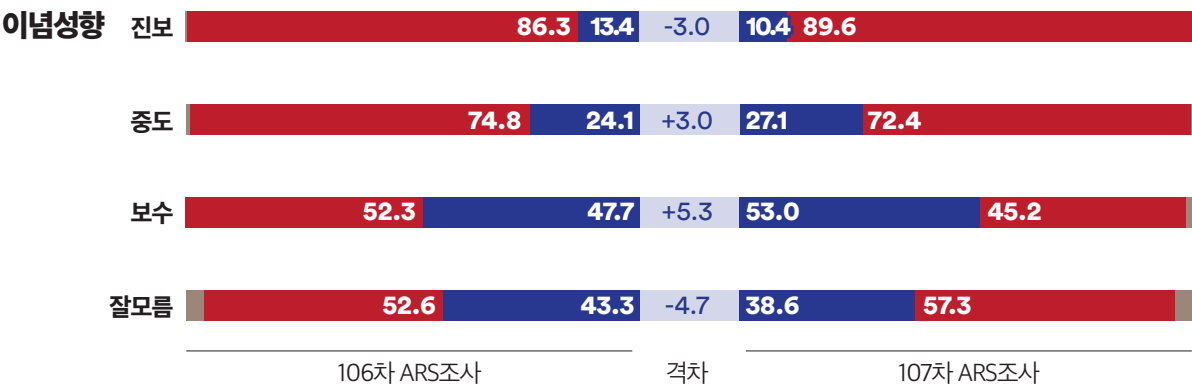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Q.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CATI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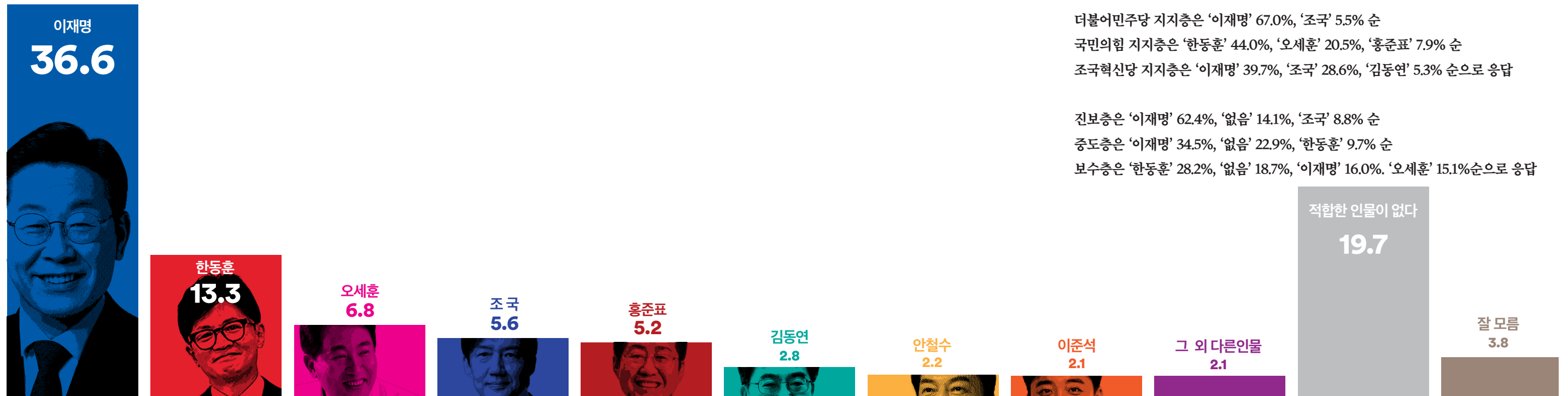


격차 잘하고 있다 잘 못하고 있다 모르겠다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CATI 조사

Q. 다음 인물 중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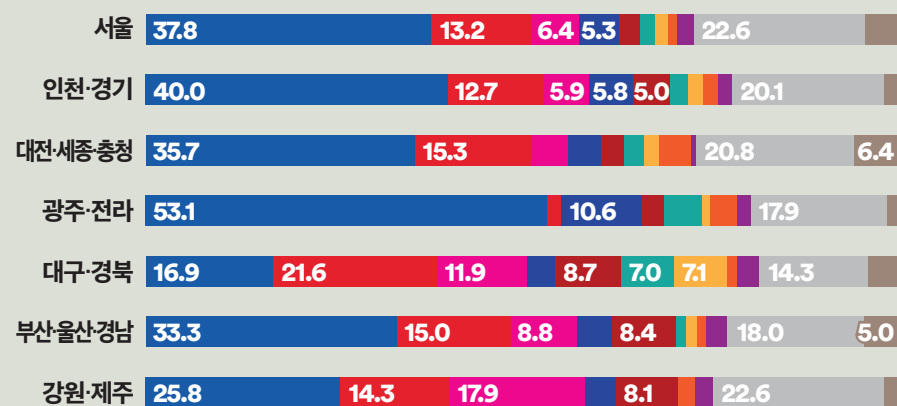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 묻는 CATI조사에서
‘이재명’이 ‘한동훈’ 대비 우세(격차: 23.3%p)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이재명’이란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30~60대 응답층에서는 ‘이재명’,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한동훈’이 가장 많음
18~29세 응답층에서는 ‘적합한 인물이 없다’ 40.4%, ‘이재명’ 11.3%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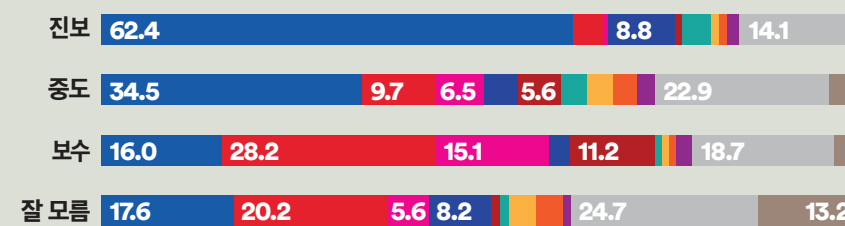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67.0%, ‘조국’ 5.5% 순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동훈’ 44.0%, ‘오세훈’ 20.5%, ‘홍준표’ 7.9% 순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이재명’ 39.7%, ‘조국’ 28.6%, ‘김동연’ 5.3% 순으로 응답

진보층은 ‘이재명’ 62.4%, ‘없음’ 14.1%, ‘조국’ 8.8% 순
중도층은 ‘이재명’ 34.5%, ‘없음’ 22.9%, ‘한동훈’ 9.7% 순
보수층은 ‘한동훈’ 28.2%, ‘없음’ 18.7%, ‘이재명’ 16.0%, ‘오세훈’ 15.1%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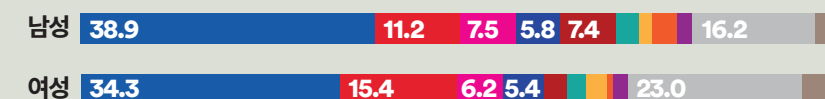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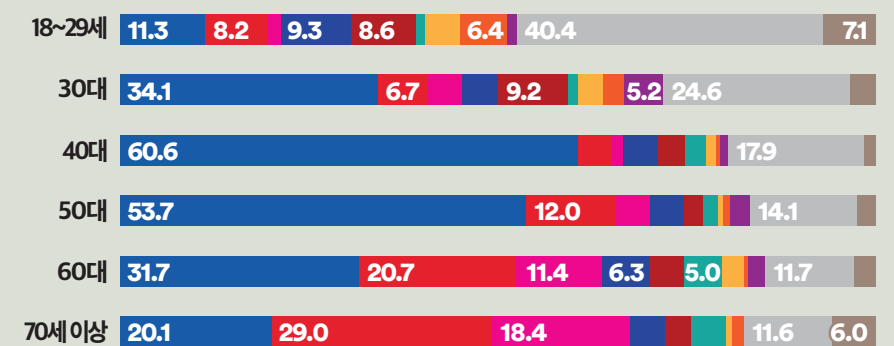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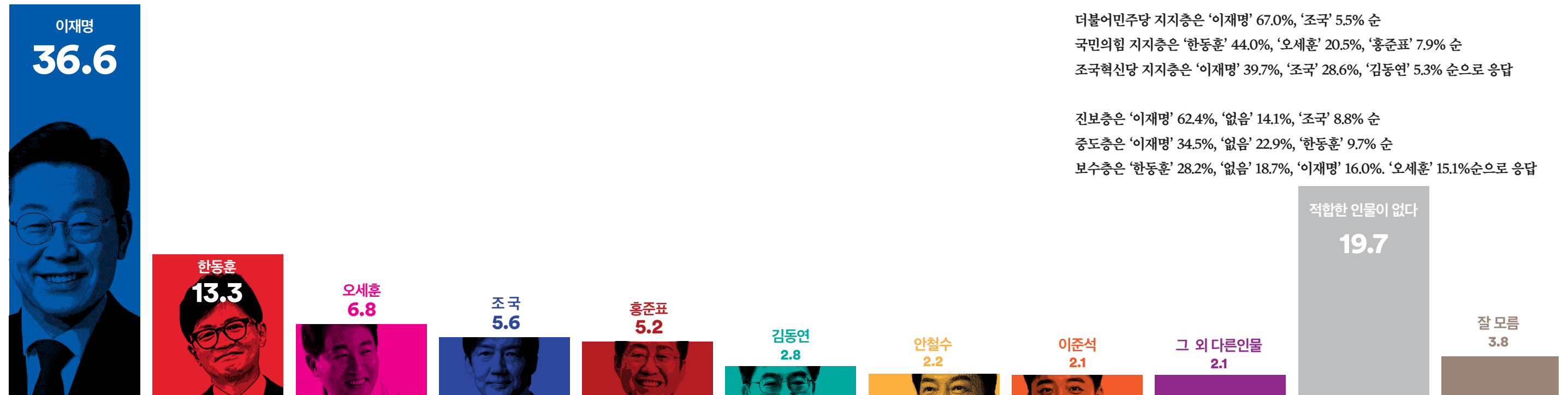
연령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CATI 조사

Q. 다음 인물 중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CATI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 묻는 CATI조사에서

‘이재명’이 ‘한동훈’ 대비 우세(격차: 23.3%p)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이재명’이란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30~60대 응답층에서는 ‘이재명’,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한동훈’이 가장 많음

18~29세 응답층에서는 ‘적합한 인물이 없다’ 40.4%, ‘이재명’ 11.3%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67.0%, ‘조국’ 5.5% 순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동훈’ 44.0%, ‘오세훈’ 20.5%, ‘홍준표’ 7.9%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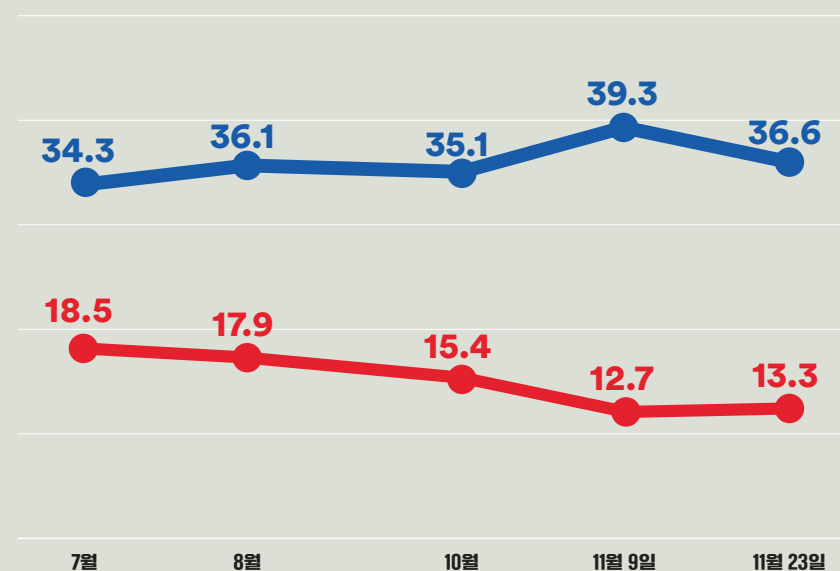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이재명’ 39.7%, ‘조국’ 28.6%, ‘김동연’ 5.3% 순으로 응답

진보층은 ‘이재명’ 62.4%, ‘없음’ 14.1%, ‘조국’ 8.8% 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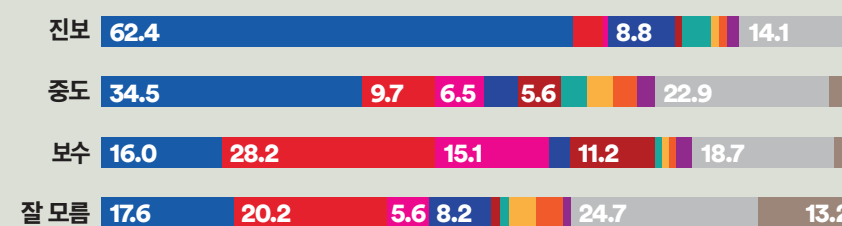
중도층은 ‘이재명’ 34.5%, ‘없음’ 22.9%, ‘한동훈’ 9.7% 순

보수층은 ‘한동훈’ 28.2%, ‘없음’ 18.7%, ‘이재명’ 16.0%, ‘오세훈’ 15.1%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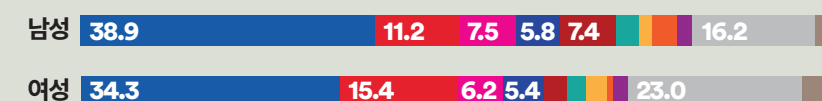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추이: 이재명 vs 한동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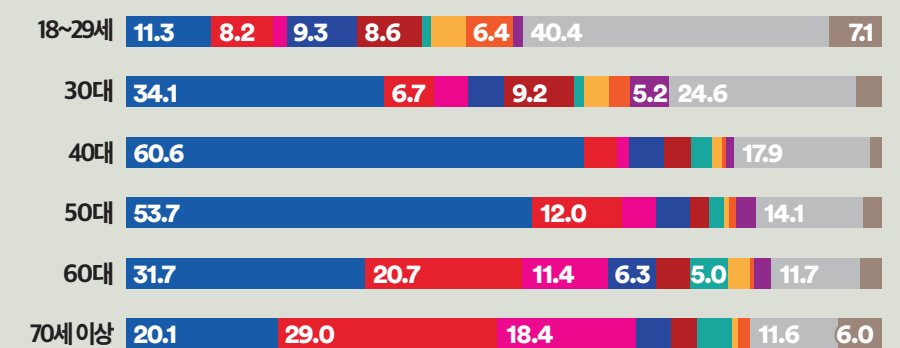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연령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ARS 조사

Q. 다음 인물 중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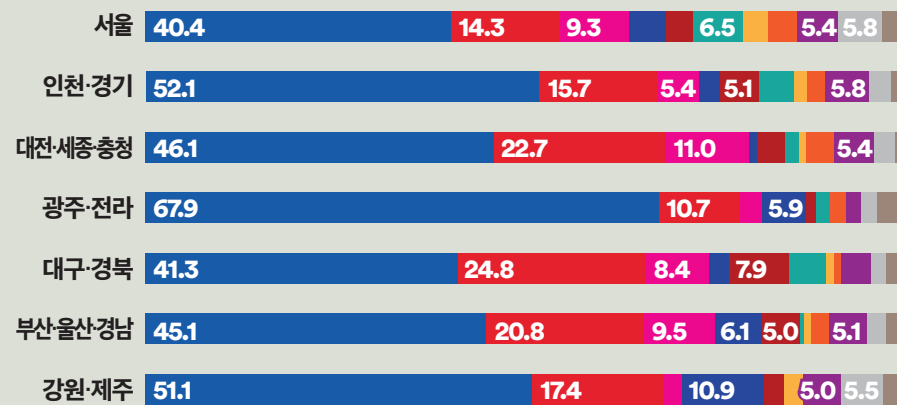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 묻는 ARS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이재명’이라고 응답, ‘한동훈’ 대비 우세(격차: 31.3%p) 모든 권역과 모든 연령층에서 ‘이재명’이란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도 ‘이재명’이 오차범위 내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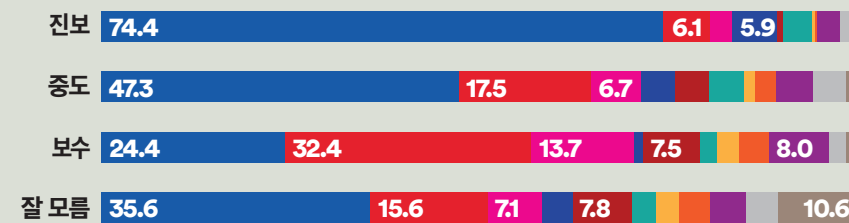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82.6%, ‘김동연’ 4.3%, ‘조국’ 3.2% 순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동훈’ 51.5%, ‘오세훈’ 16.6%. ‘홍준표’ 8.0% 순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이재명’ 53.3%, ‘조국’ 21.1% 순으로 응답

진보층은 ‘이재명’ 74.4%, ‘한동훈’ 6.1%, ‘조국’ 5.9% 순 중도층은 ‘이재명’ 47.3%, ‘한동훈’ 17.5%, ‘오세훈’ 6.7% 순 보수층은 ‘한동훈’ 32.4%, ‘이재명’ 24.4%, ‘오세훈’ 13.7%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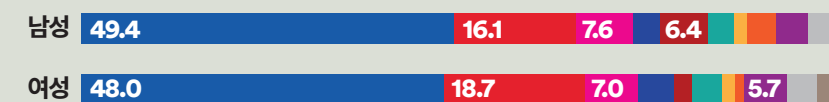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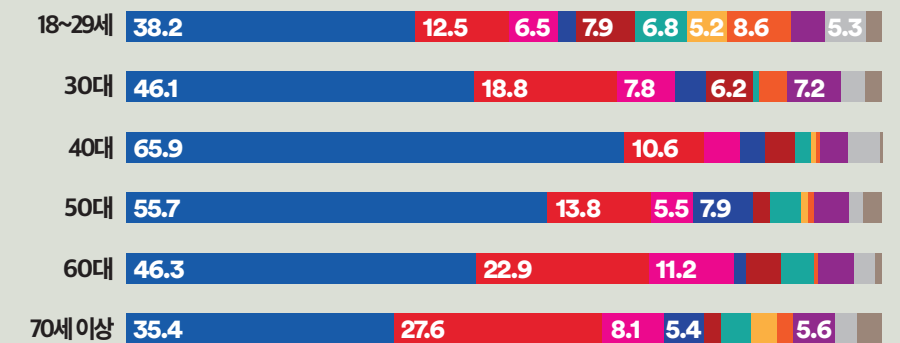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연령



차기 대권 주자 적합도: ARS 조사

Q. 다음 인물 중 차기 대권 주자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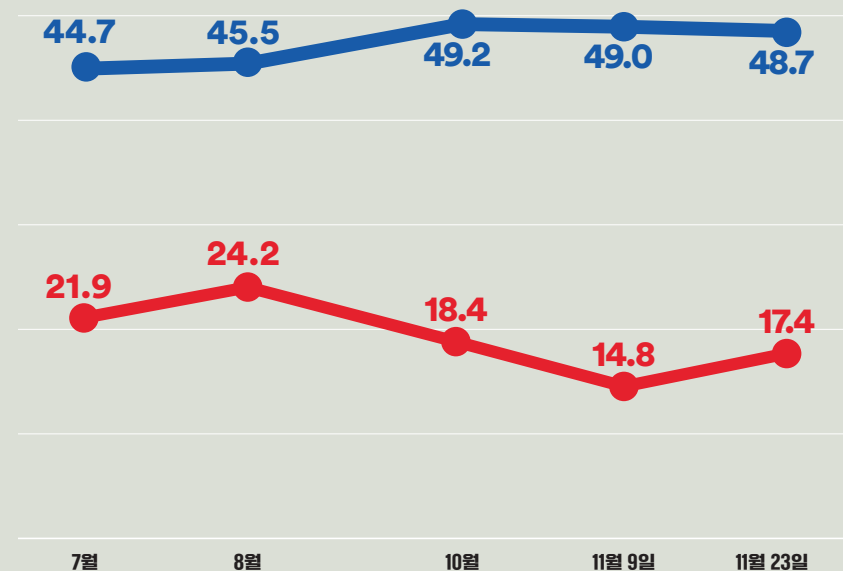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가장 적합한가’에 대해 묻는 ARS조사에서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이재명’이라고 응답, ‘한동훈’ 대비 우세(격차: 31.3%p) 모든 권역과 모든 연령층에서 ‘이재명’이란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도 ‘이재명’이 오차범위 내 앞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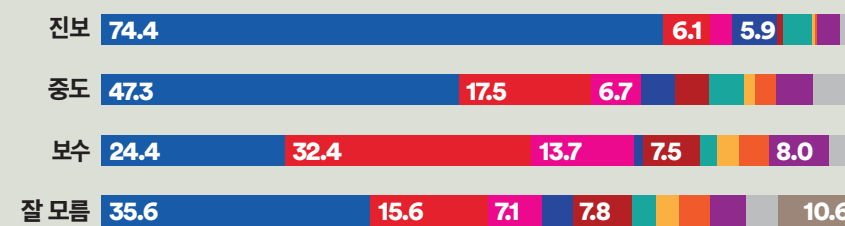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이재명’ 82.6%, ‘김동연’ 4.3%, ‘조국’ 3.2% 순 국민의힘 지지층은 ‘한동훈’ 51.5%, ‘오세훈’ 16.6%, ‘홍준표’ 8.0% 순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이재명’ 53.3%, ‘조국’ 21.1% 순으로 응답

진보층은 ‘이재명’ 74.4%, ‘한동훈’ 6.1%, ‘조국’ 5.9% 순 중도층은 ‘이재명’ 47.3%, ‘한동훈’ 17.5%, ‘오세훈’ 6.7% 순 보수층은 ‘한동훈’ 32.4%, ‘이재명’ 24.4%, ‘오세훈’ 13.7% 순으로 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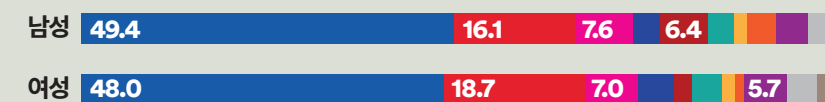
차기 대권주자 적합도 추이: 이재명 vs 한동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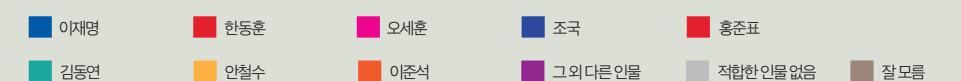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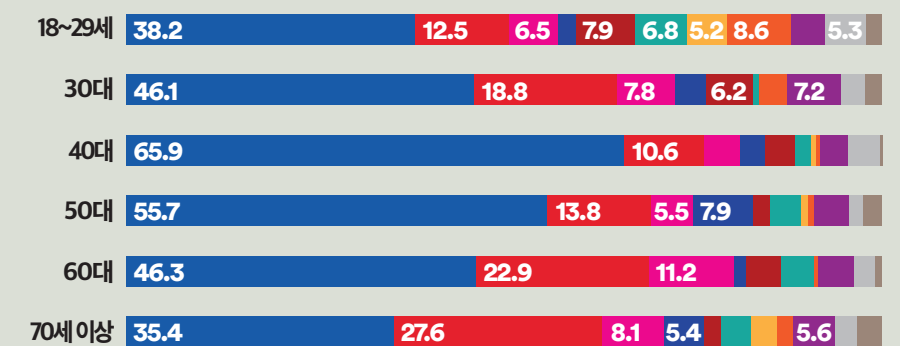
이념성향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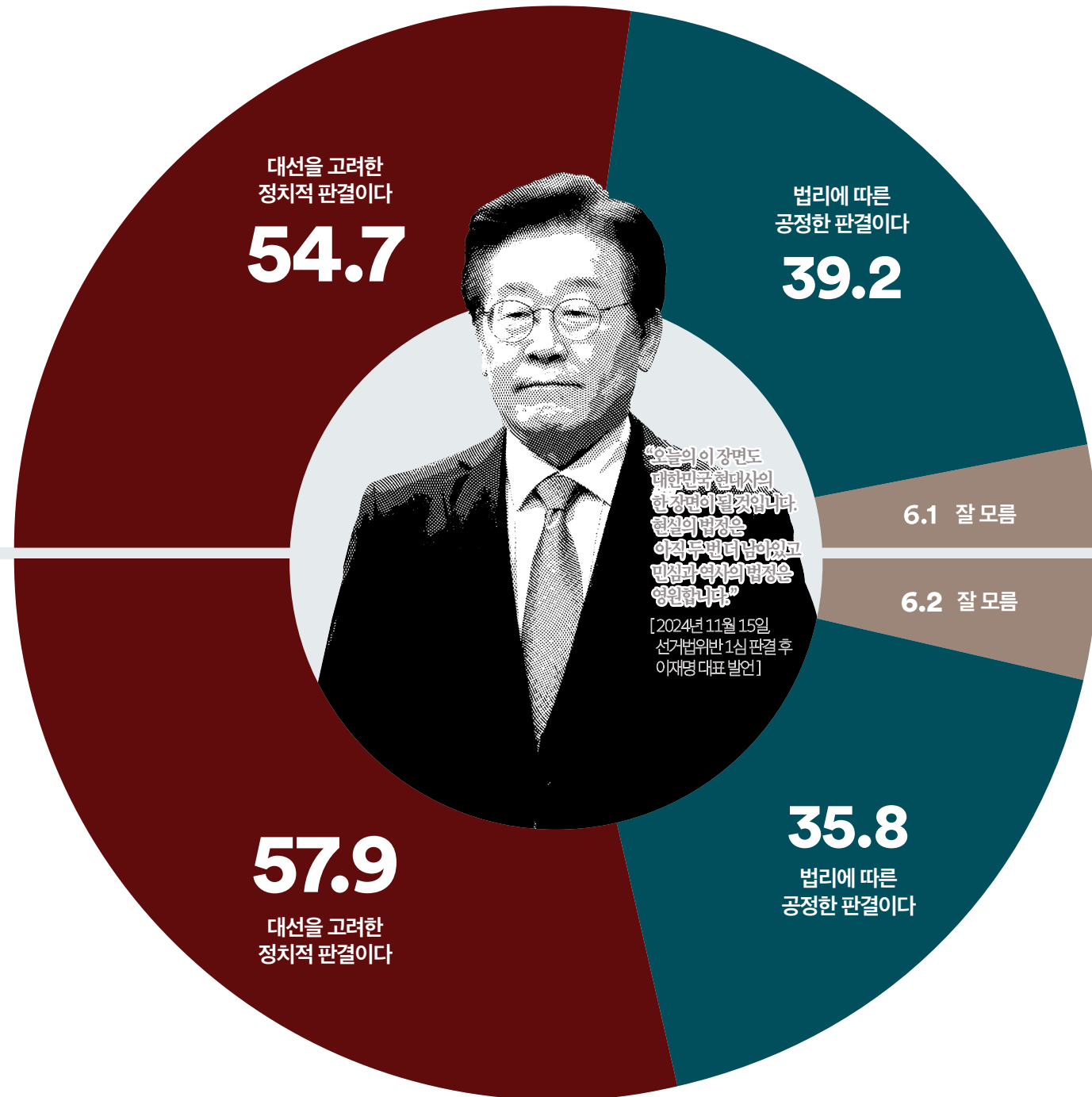
연령



Q.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이례적으로 징역형을 선고한 것에 대한 다음 두 의견 중 어디에 더 공감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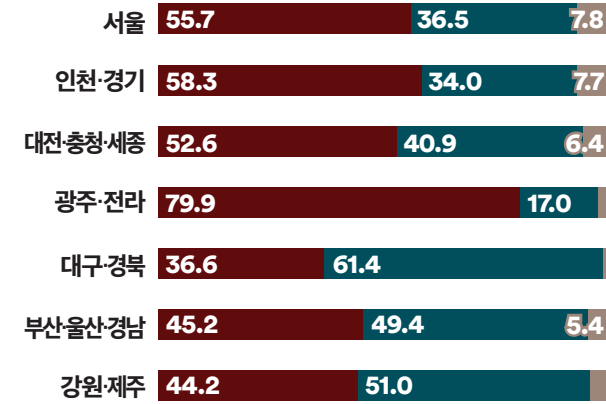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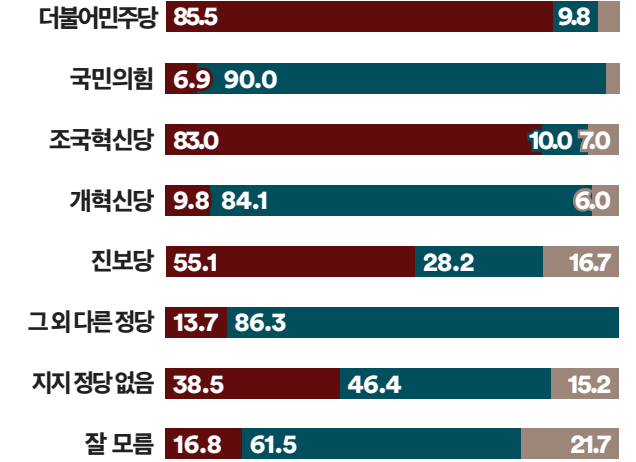
응답자 과반 이상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가 '대선을 고려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응답(응답 간 격차: CATI 15.5%p, ARS 22.1%p)

'정치적 판결'이란 응답은 두 조사의 모든 성별, CATI 조사의 30~50대, ARS의 60대이하 응답층에서 앞서거나 우세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 CATI조사의 18-29세와 70세 이상 응답층에서는 '공정한 판결'이라는 응답이 앞서거나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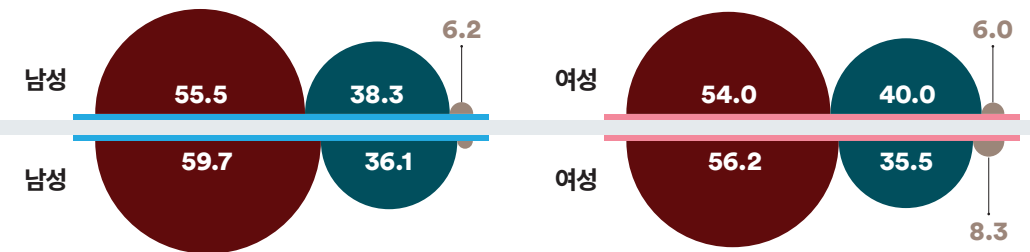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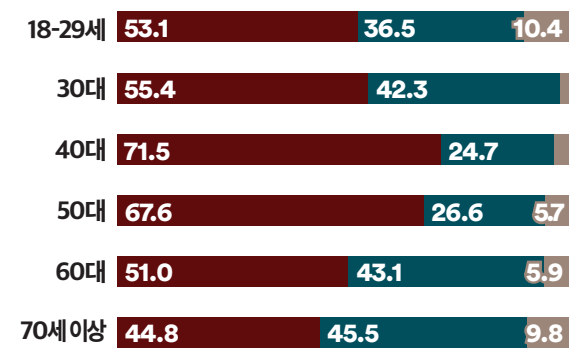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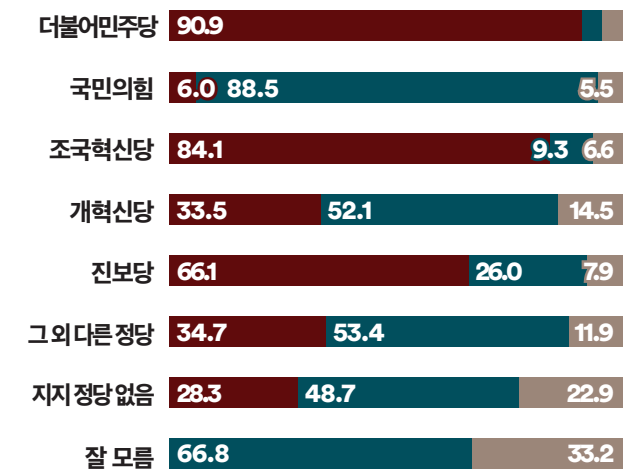
성별



연령



정당지지도



대선을 고려한 정치적 판결이다 법리에 따른 공정한 판결이다 잘 모름

Q.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라운딩에 대해 대통령실은 ‘트럼프 미대통령 당선자와 정상외교를 위한 준비’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CATI

“대통령의 스포츠 활동은 보통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만약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을 초청해 같이 라운딩을 하자고 했을 때, (윤 대통령이) 골프를 전혀 못 치면 라운딩에 응할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것도 골프에서는 결례”

“골프는 제 경험상 하루이틀 한두 번 연습한다고 되는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미리 어떤 생각 속에서 대통령의 주말 골프가 있지 않았을까”

[2024년 11월 19일 국회운영위원회 홍철호 정무수석 발언 중]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이다

67.0

외교를 위해
준비한 것이다

26.4

잘 모름

6.6

ARS

64.2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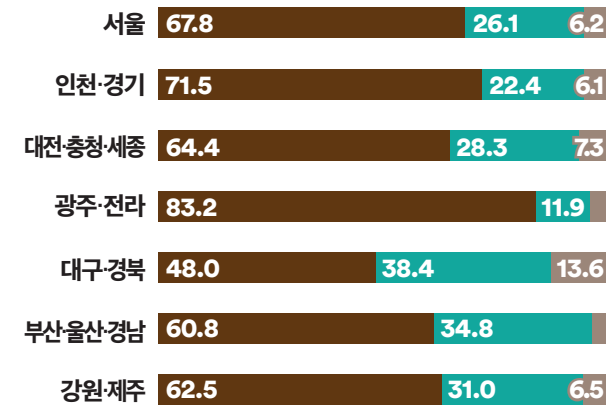
28.5

외교를 위해
준비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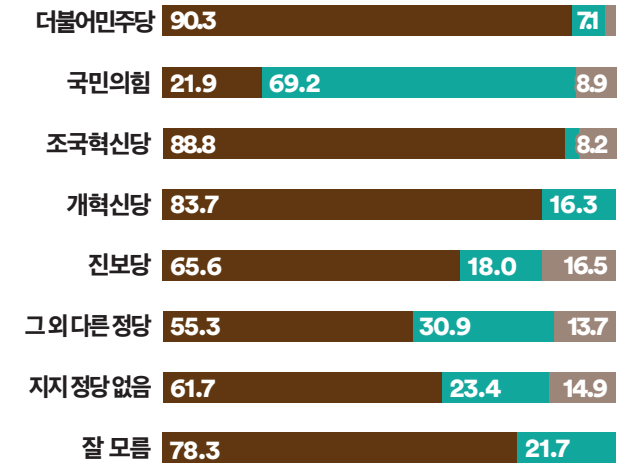
잘 모름

7.3

권역



정당지지도



성별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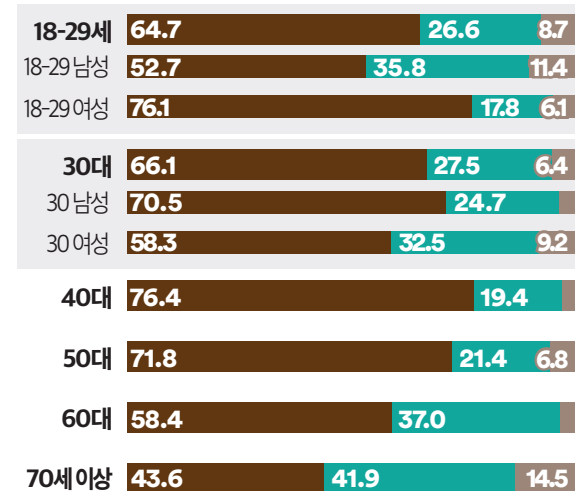
성별

남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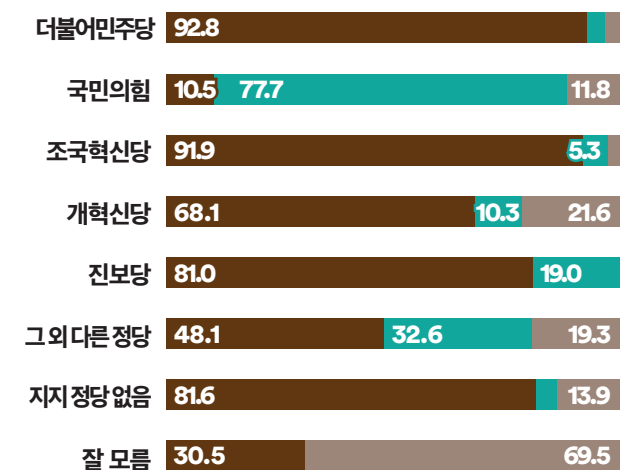
여성

여성

연령대



정당지지도



응답자 10명 중 6명 이상은 윤 대통령의 골프에 대한 해명을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응답(응답 간 격차: CATI 40.6%p, ARS 35.7%p)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이라는 응답은 두 조사의 60대 이하의 연령과 CATI 조사의 TK를 제외한 모든 권역에서 우세

보수층에서는 ‘외교를 위해 준비한 것이다’라는 의견이 비등하거나 앞섬(응답 간 격차: CATI 5.6%p, ARS 13.0%p)

중도층에서는 두 조사 모두 전체 응답자의 입장과 비슷한 비율로 나타남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외교를 위해 준비한 것’이란 응답이 우세(CATI 69.2%, ARS 77.7%)

■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변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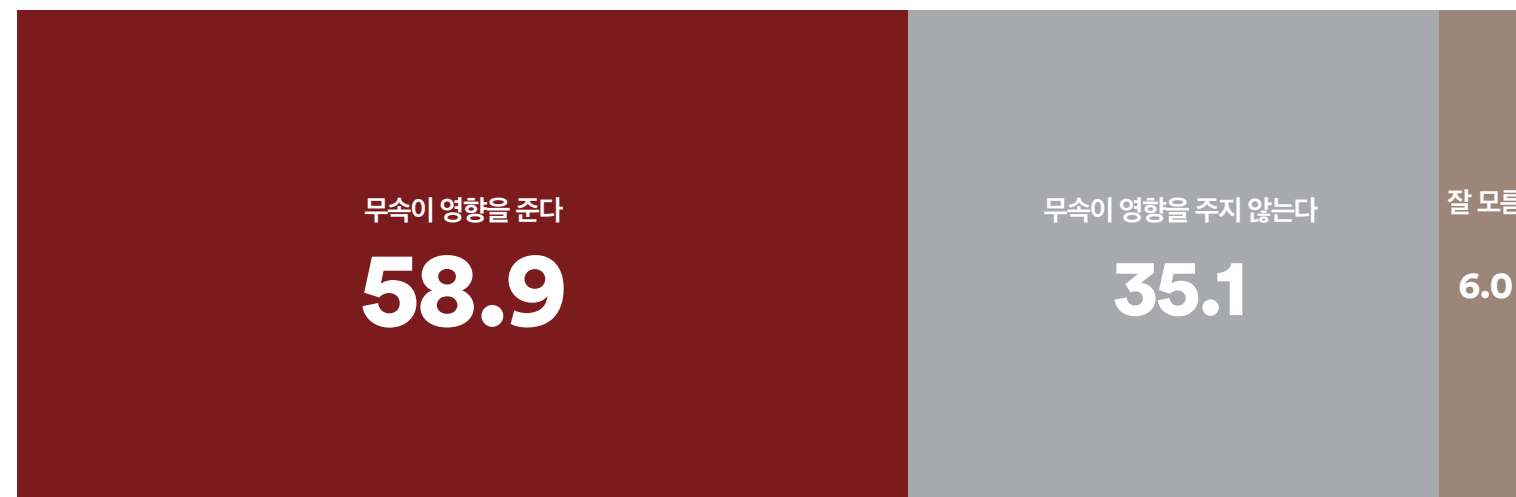
■ 외교를 위해
준비한 것이다

■ 잘 모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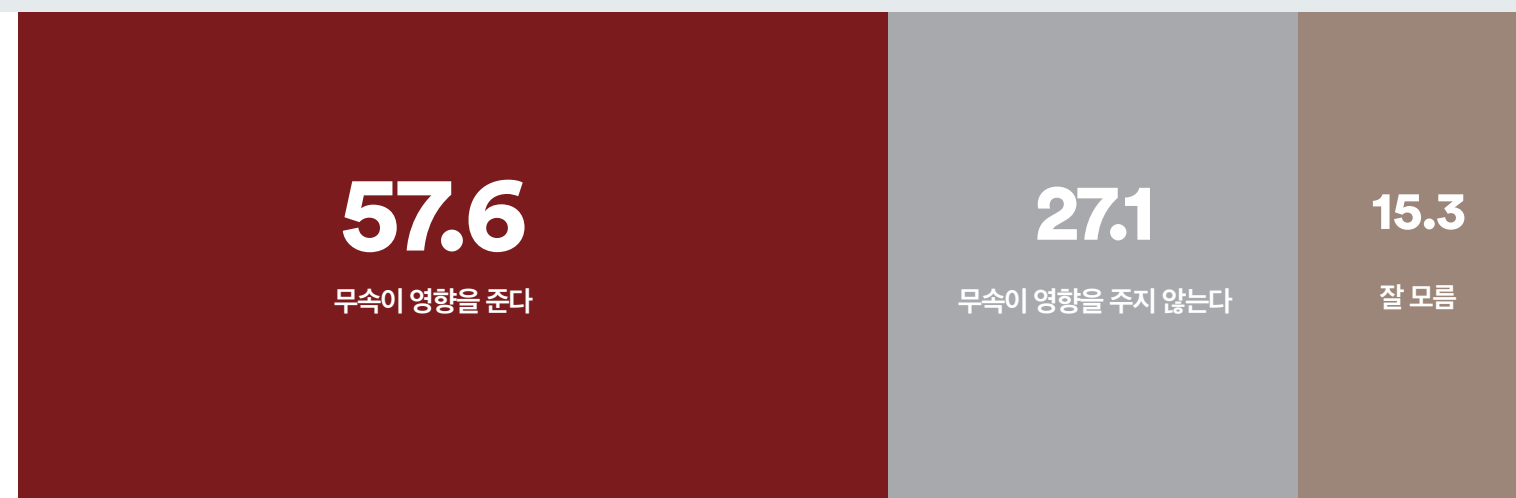


Q. 이번 정권의 국정 결정에 무속이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CA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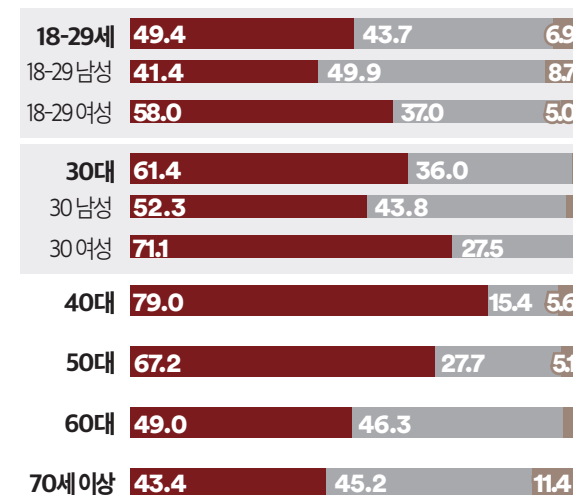


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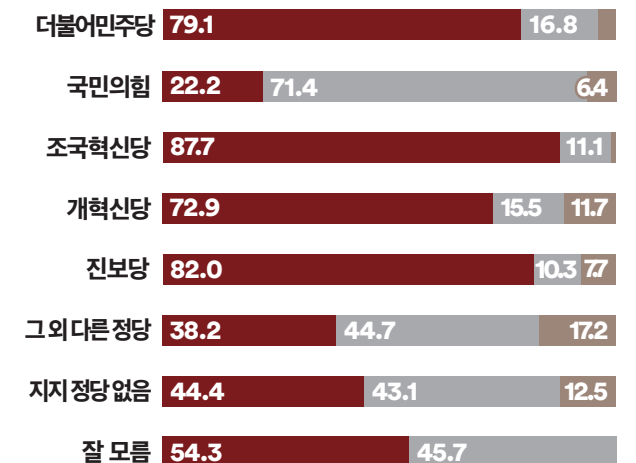


응답자 10명 중 6명 가까이는 이번 정권의 '국정결정에 무속이 영향을 준다'고 응답(응답 간 격 차:CATI 23.8%p, ARS 30.5%p)
CATI 조사의 TK, 70세 이상을 제외한 두 조사의 모든 권역과 연령별 응답층에서 '무속이 영향을 준다'란 응답이 높게 나타남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CATI조사의 수도권, 호남권, PK와 ARS조사의 모든 권역에서 우세
ARS조사의 모든 연령층과 CATI조사의 30-50대 응답층에서도 '영향을 준다'는 응답 우세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영향을 준다'는 응답,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응답이 압도적 우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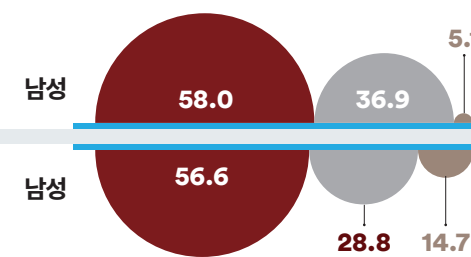
연령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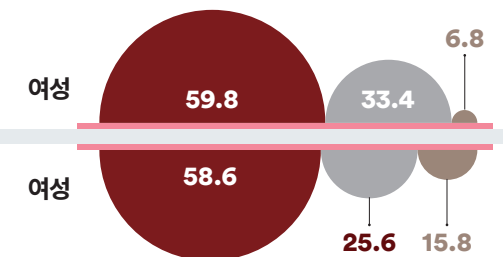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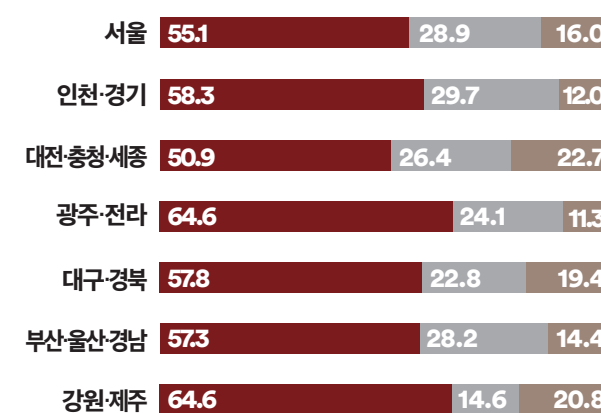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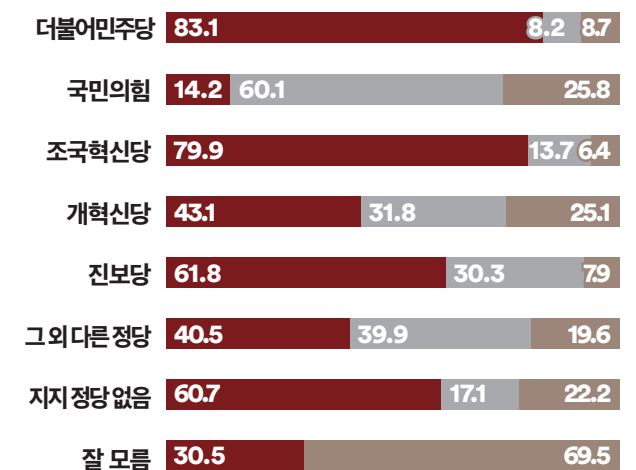
성별



권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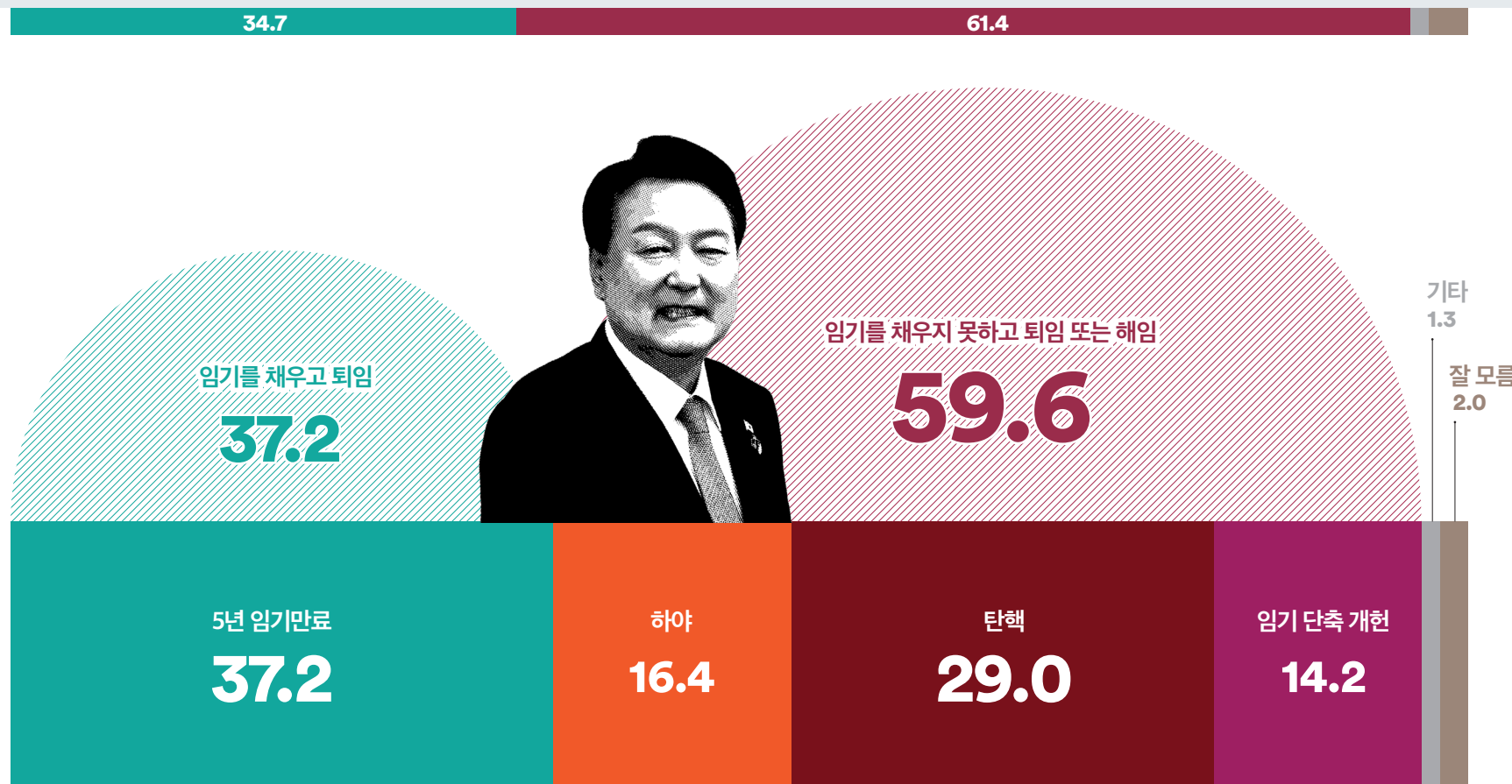
정당지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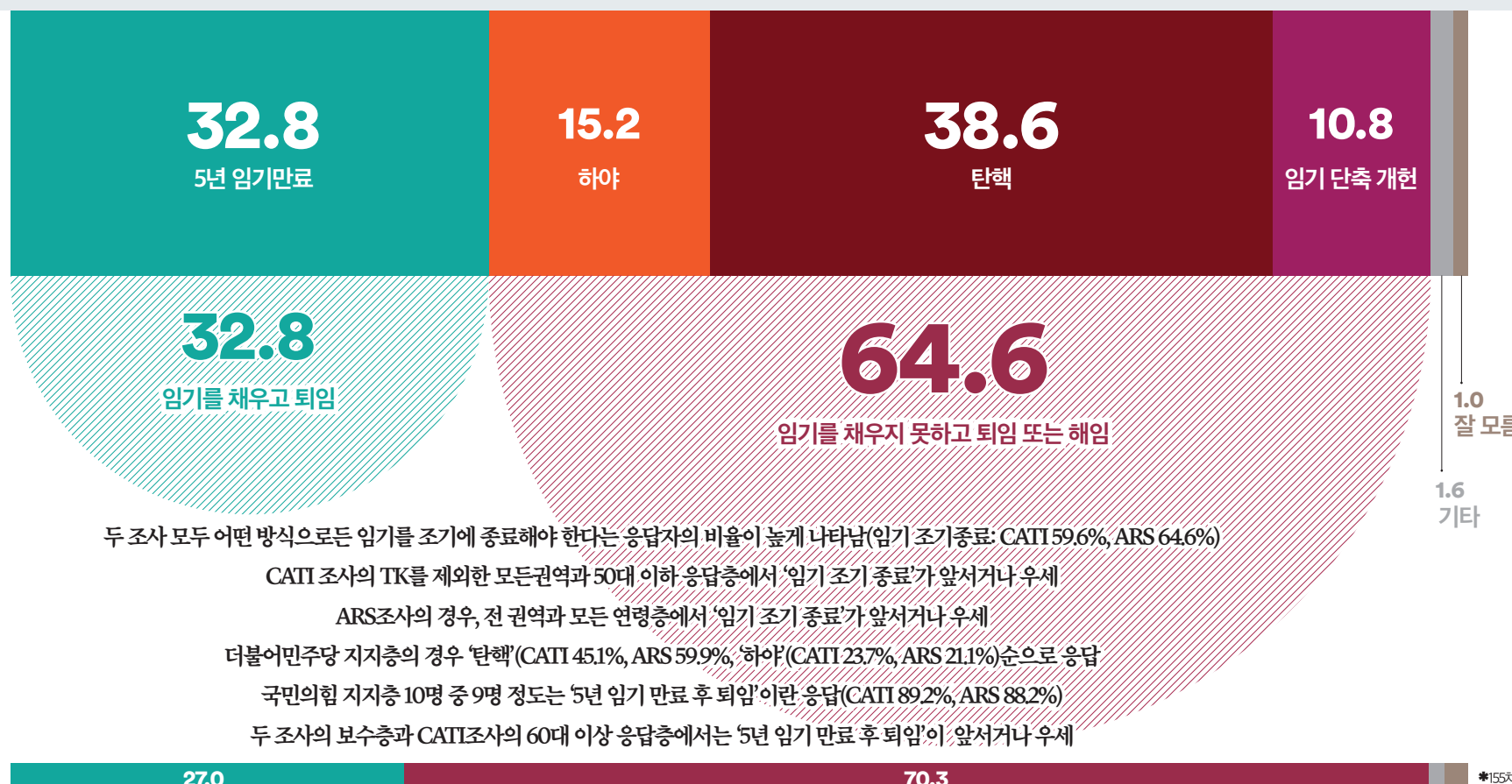
영향을 준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잘 모름

Q. 윤석열 정권의 임기가 다음 중 어떤 방식으로 끝나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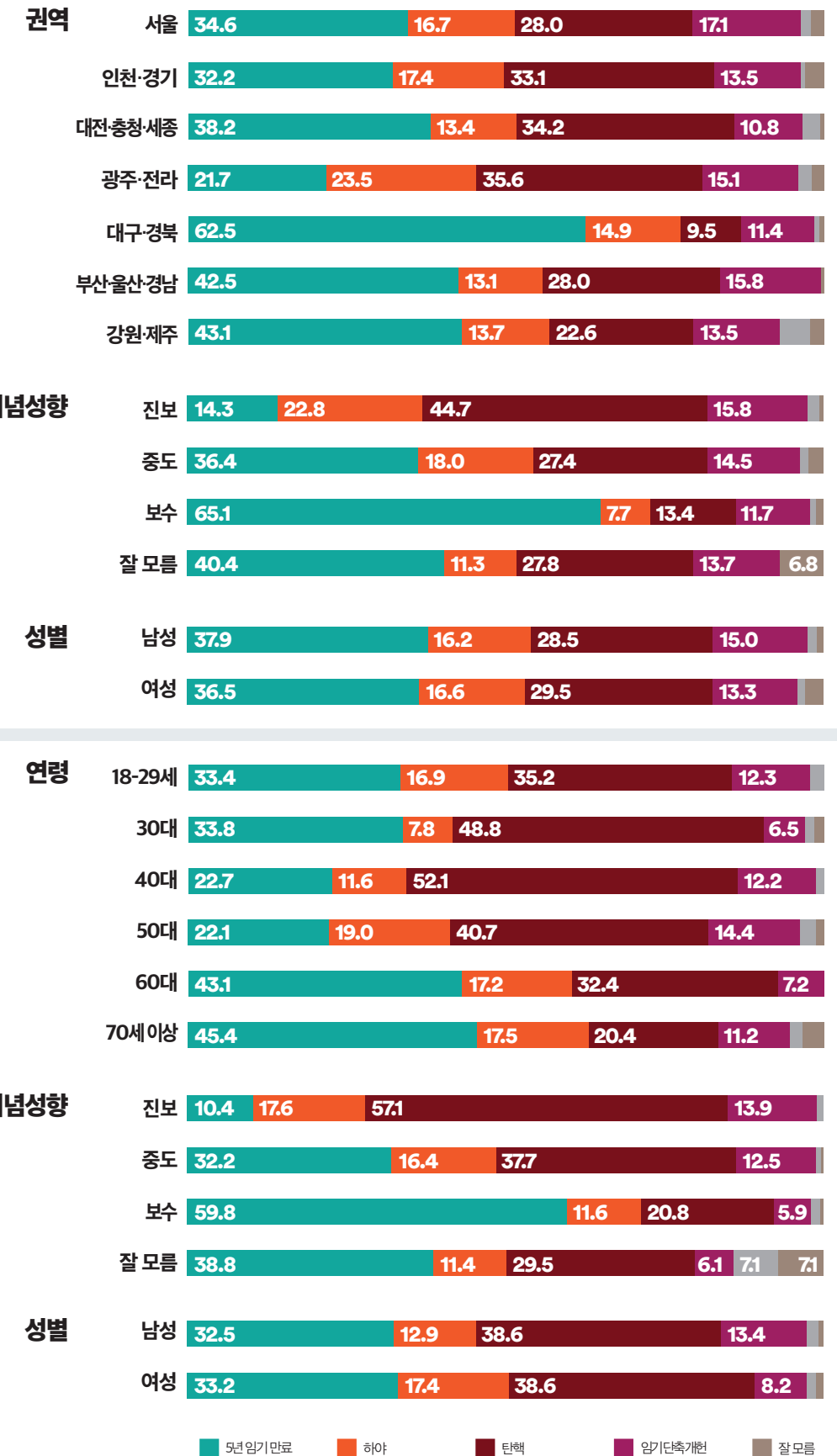
CATI



ARS



두 조사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임기를 조기에 종료해야 한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남(임기 조기종료: CATI 59.6%, ARS 64.6%)
CATI 조사의 TK를 제외한 모든권역과 50대 이하 응답층에서 '임기 조기 종료'가 앞서거나 우세
ARS조사의 경우, 전 권역과 모든 연령층에서 '임기 조기 종료'가 앞서거나 우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탄핵'(CATI 45.1%, ARS 59.9%, '하야'(CATI 23.7%, ARS 21.1%)순으로 응답
국민의힘 지지층 10명 중 9명 정도는 '5년 임기 만료 후 퇴임'이란 응답(CATI 89.2%, ARS 88.2%)
두 조사의 보수층과 CATI조사의 60대 이상 응답층에서는 '5년 임기 만료 후 퇴임'이 앞서거나 우세



*155차 보고서의 임기종료 방식 질문 응답

WWW.
FLOWERRESEARCH.
COM

여론조사꽃 정례여론조사 보고서

WR_202411_04